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27.(수) 13:00 (총 5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 장 김 용 상 사무관 한 명 주	전화번호	062-720-0332

28~29일, 태풍급 강풍과 함께 급변하는 날씨 - 전남권 많은 눈 -

- 28~29일 최대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, 해상 최고 6m 높은 물결
-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 유의, 해상 선박 사전 대피
- 28일 전남권 대부분 비 또는 눈, 전남북부 중심 많은 눈, 빙판길 조심
- 전남북부 최대 15cm 적설
- 28일 오후~30일 오전 강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 더 낮아
- 전남권 내륙 아침 최저기온 -10℃ 내외

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김금란)은 **28일(목) 오후~29일(금)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**이 불겠다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 또한, **강한 추위와 함께 전남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**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,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강조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**28~29일에 강풍과 강수**를 동반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고, 그 뒤를 따라 서쪽의 고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.
 - **28일** 낮 동안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전남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.
 - 특히, **28일** 낮부터 서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고,
 - 이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.
 - 또한,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권은 **29일**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28일 아침에 서해도서를 시작으로, 낮부터는 내륙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(시속 45~65km, 초속 12~18m)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, 29일까지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 - 특히, 전남해안과 도서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(초속 25m) 이상,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다.

- 28일 아침에 서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(시속 35~70km, 초속 10~20m)으로 인해, 물결이 2~6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모든 해상에서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가시거리도 좋지 않은 가운데,
 - 특히 28일 오후에 서해남부와 남해서부먼바다에는 6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로 풍랑경보 가능성이 있으니,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, 이번 높은 물결은 29일(금)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-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·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, 항공기와 해상 선박의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[강수 전망]

- 28일은 낮 동안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전남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28일 오전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,
 -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서해상에 유입되면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29일 오전까지 전남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
- 특히 전남북부는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며 대부분 지역(남해안 제외)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.

< 예상 적설(28~29일 오전) >	
광주, 전남(남해안 제외)	3~10cm(많은 곳 전남북부 15cm 이상)
전남남해안	1~5cm

- 특히,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의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.
- 또한, 이번 강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강수형태(눈과 비의 경계)를 결정짓는 지상의 기온이라며, ① 1~2℃의 미세한 차이에도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시점이나 적설이 달라질 수 있고, ② 같은 지역

내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
- 이에 기상청은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, 서쪽으로부터 구름대가 다가오는 **28일 새벽부터는 1~2시간 간격으로** 보다 정확한 강수의 형태와 시작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상정보를 발표하겠다고며, 최신의 기상 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**28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것으로** 전망하였다.
- 29~30일은 전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-10°C 내외로 내려가는 등 28일에 비해 $5\sim 10^{\circ}\text{C}$ 가량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$5\sim 10^{\circ}\text{C}$ 가량 높게 유지되면서 비교적 온화했던 상태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5°C 가량 낮은 상태로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가 더욱 강하겠다”며
-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하는 것은 물론,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°C 가량 더 낮아지는 만큼 야외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하였다.